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1월 30일(수) 10:3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나기용 과장(2110-4872), 최광준 사무관(4875)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6050-3811), 이시형 연구원(3813)

*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말씀 위주로 보도자료 배포

범경제계, 전력위기 대응 "절전경영" 선언 !

-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 개최 -

◇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자율적인 절전실천 협약

- ▸동절기 전력피크감축을 위해 정부대책에 협력
- ▸동절기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동참
- ▸연간 5% 절전목표를 선언하고 자율절전 실천
-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

◇ 국가 전체전력의 30%*를 사용하는 12개 업종별 협회 참여

* 12개 업종 에너지다소비사업장(1,624개) 전력 사용량 기준

◇ 12월 중, 업종별(기업별) 자율절전 이행방안 수립·발표

◇ 이행점검기구로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 구성·운영

□ 경제단체·시민단체·업종별 협회 대표는 11.30.(수),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하고,

* [첨부1] 사회적 협약식 개요, [첨부5] 주요참석자

○ ▸동계 전력피크 감축,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제한, ▸연간5% 절전목표 선언 및 자율실천, ▸에너지절약운동 확산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절전경영"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 "절전경영"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기업)별로 연간 5% 절전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절전 세부이행방안」을 12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 「(가칭)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업종(기업)별 「자율절전 세부이행방안」의 실천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함

□ 금번 협약에는 경제4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에너지다소비업종을 대표하는 12개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여 협약의 의미가 더욱 돋보임 (단체 및 협회명단 첨부2 참조)

○ 협약에 참여한 12개 업종의 경우, 연간 2,000toe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1,624개이며,

○ 1,624개 사업장의 연간 전력사용량(1301.8억kWh)은 국가전체 전력사용량(4341.6억kWh)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다소비(연간 2,000TOE 이상) 사업장 현황('10년 기준, 에너지관리공단) >

구분	전력사용량(억kWh)	사업장수(개)
12개 업종 에너지다소비사업장*	1301.8	1,624
전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장	1772.8	3,054
국가 전체	4341.6	-

* [첨부3] 12개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전력사용 현황

[사회적 협약 세부내용]

□ 금번 사회적 협약에서는 동계 전력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절전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범경제계가 자발적인 절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으며

① 이를 위한 세부실천사항으로 동계 전력부족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동계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11.10. 발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첨부 5] 동계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 요약

② 올 겨울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순차운휴, 네온사인 사용제한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③ 연간 5%의 절전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기로 함

④ 에너지절약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로 함

[사회적 협약 이행체계]

□ 협약내용들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업종(기업)별 「자율절전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 금년 12월 중, 업종(기업)별로 연간 5% 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수립하여 대외 발표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임

□ 자발적인 실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가칭)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본부장으로 업종별 협회 및 시민단체 임원으로 구성

○ 경제계 스스로 연간 5% 절전목표 달성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 동계 전력피크기간(12.5~2.29) 중에는 시민단체도 이행점검에 참여함으로써 경제계의 절전 실천을 독려해 나갈 계획임

□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약식에 앞서 열린 경제계 인사와의 상견례를 겸한 환담자리에서

○ 금년 동절기 전력수급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동계 최대전력수요 : 7,853만kW(전년대비 5.3% 증가)
동계 전력공급능력 : 7,906만kW(전년대비 2.4% 증가)
⇨ 동계기간 대부분 예비전력 400만kW 이하로 전망

○ 전력부족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계가 솔선수범하고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절전실천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범 경제계 차원의 절전 이행 노력을 당부함

□ 금번 행사는 건물 난방온도 준수(20℃ 이하), 창측 조명 일부소등(자연채광 활용) 등 「절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음

첨부 1.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 개요
2.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서(안)
3.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전력사용량 현황
4. 동계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에너지절약대책(요약)
5.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 주요 참석자
6. 일본의 하계 절전대책 및 자발적 절전추진 사례

첨부 1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 개요

□ 협약개요

○ 경제단체, 에너지다소비 업종 협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 개최

○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동계 전력부족 위기극복 및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동계 전력피크 감축 및 연간 5% 절전을 선언

□ 협약내용

○ (동계 전력피크 감축) 정부의 「동계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대책(11.10. 발표) 」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선언

○ (연간 5% 절전) 연간 5% 절전 목표를 선언하고 단체별·협회별 자발적 이행을 결의

○ (절전교육 및 홍보) 에너지절약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확대

□ 추진체계

○ (추진기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를 구성·운영

* 구성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본부장으로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참여

- 동계 전력피크 감축, 연간 5% 절전 실천을 위한 업종별(기업별) 세부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자발적으로 이행

○ (이행점검) 경제계 주도로 자율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피크 기간에는 시민단체도 점검활동에 참여

□ 향후일정

○ 지자체(행안부), 의료기관(복지부), 호텔·문화체육시설(문화부), 학교(교육부) 등 소관 부처별로 사회적 협약 추진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1.11.30(수) 10:00~10:50, 대한상의 챔버라운지(20층)

○ 참석자

-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경제단체) 손경식(대한상의 회장), 이희범(경총 회장), 정병철(전경련 상근부회장), 송재희(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업종협회) 정준양(철강협회 회장), 윤종용(전자정보통신진흥회 회장), 정범식(석유화학협회 회장), 박종웅(석유협회 회장), 고규환(시멘트협회 회장), 이상문(제지협회 회장), 권영수(자동차협회 회장), 김용만(프랜차이즈협회 회장), 하병호(백화점협회 회장), 정지택(기계산업진흥회 회장), 안승용(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김수봉(비철금속협회 이사)
- (시민단체) 김재옥(소비자단체협의회장), 남미정(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재창(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 행사일정 ※국무총리 주재 티타임은 비공개

시간	세부내용	장소	비고
10:00~10:20 (20′)	지경부장관 주재 환담	챔버라운지	경제단체업종별 협화시민단체 대표
10:30~10:35 (5′)	국무총리 주재 티타임	VIP룸	지경부장관, 녹색위 위원장 경제단체시민단체 대표
10:35~10:38 (3′)	개회사	챔버라운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10:38~10:41 (3′)	협약서 낭독 및 서명		정준양 철강협회 회장
10:41~10:46 (5′)	격려사		국무총리
10:46~10:50 (4′)	기념촬영		① 협약서 전달(상의회장→총리님) ② 참석자 전원

첨부 2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서(안)

우리는 동계 전력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해 범국민적인 절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자발적인 절전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전력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동계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에 적극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올 겨울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순차운휴, 네온사인 사용제한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연간 5%의 절전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에너지절약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 홍보에 적극 노력한다.

2011년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첨부 3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전력사용 현황

□ 12개 업종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전력사용 현황('10년, 에너지관리공단)

구분	사회적협약 참여협회	업종	전력사용량(억kWh)	사업장수(개)
산업	한국철강협회	철강	309.0	172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	322.6	424
	대한석유협회	정유	7.2	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전자	307.5	202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	56.7	58
	한국제지공업협합회	제지목재	81.0	111
	한국비철금속협회	비철금속	62.7	81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64.8	13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	45.9	170
	소계		1,257.4	1,366
건물	한국백화점협회	백화점	17.5	96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할인점	7.6	76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일반빌딩	19.3	86
	소계		44.4	258
12개 업종 에너지다소비사업장			1,301.8	1,624

□ 전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전력사용 현황('10년, 에너지관리공단)

구분	전력사용량(억kWh)	사업장수(개)
12개 업종 에너지다소비사업장	1301.8	1,624
전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장	1772.8	3,054
국가 전체	4341.6	-

※ '10년 용도별 전력판매량(억kWh, '10년 한국전력 통계)

구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합계
판매량	828.9	974.1	74.5	2326.7	106.5	30.8	4341.6
비중	19.1%	22.4%	1.7%	53.6%	2.5%	0.7%	100%

첨부 4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 요약

구분		대상	내용	인센티브	페널티
에너지절약대책	자율절전	경제계 사회적협약 국민 자율절전 운동	연간 5% 자율절전	-	-
	난방온도제한	대형건물 및 전력다소비시설 (별도통보)	피크기간 20℃ 유지	-	과태료
	난방기 순차운휴	2,000TOE 이상 대형사업장 및 건물 (별도통보)	피크기간 오전·오후 각 30분씩 순차 운휴	-	과태료
	공공기관 난방중지	공공기관 전체	피크시간 난방중지	-	명단공표 평가반영
	광고간판 조명제한	네온사인 광고조명	피크시간대 (17시~19시) 사용제한	-	과태료
	전철 운행간격 조정	1~9호선 및 경인·경부·경원·분당선 등 13개 노선	오전피크시간 운행간격 연장	-	-
전력수요관리	절전 규제	1,000kW 이상 고압수용가 (별도통보)	피크시간대 10% 절전	-	과태료 피크요금제
	주간 할당	4,000개 업체 (사전약정)	지정 주간 피크시간대 20% 절전	최대 960원/kWh (절전규제 50%경감)	-
전력수급 비상시 조치	<관심> 전압조정	특정대상 없음	전압 조정	-	-
	<주의> 직접부하제어	300kW이상 수용가 216개소 (사전약정)	부하 제어	전일 800원/kWh 당일 1,600원/kWh 긴급 2,400원/kWh 기본 500원/kWh	1,000원/kW
	<경계> 긴급자율절전	1시간 내 긴급감축가능 수용가 (사전약정)	50% 절전	3,000원/kWh	-
	<심각> 우선차단	단독선로 수용가 (선정시 업종별 피해 고려)	부하 차단	1,000원/kWh	-

첨부 5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 주요 참석자

구분	참석자(생년)		주요 경력
경제단체		손 경 식 (1939)	■ 現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現 CJ그룹 회장 ■ 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이 희 범 (1949)	■ 現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現 STX 에너지·중공업 총괄회장 ■ 前 산업자원부 장관
		이 동 근 (1957)	■ 現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前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정 병 철 (1946)	■ 現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現 국제경영원 회장 ■ 現 광고주협회 회장 ■ 前 LG전자 대표이사·사장
		송 재 희 (1956)	■ 現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前 중소기업청 차장 ■ 前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업종별 협회		정 준 양 (1948)	■ 現 한국철강협회 회장 ■ 現 포스코 회장 ■ 現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윤 종 용 (1944)	■ 現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 現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 前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구분	참석자(생년)		주요 경력
업종별 협회		정 범 식 (1948)	■ 現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 現 호남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박 종 웅 (1953)	■ 現 대한석유협회 회장 ■ 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前 14, 15, 16대 국회의원
		고 규 환 (1942)	■ 現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 現 아세아시멘트 대표이사
		권 영 수 (1952)	■ 現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 前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획관
		이 상 문 (1947)	■ 現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회장 ■ 前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기획이사
		정 지 택 (1951)	■ 現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 ■ 現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 前 두산건설 사장 ■ 前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김 수 봉 (1954)	■ 現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

구분	참석자		주요 경력
업종별 협회		하 병 호 (1951)	■ 現 한국백화점협회 회장 ■ 現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 前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부사장
		김 용 만 (1957)	■ 現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 現 (주)김가네 회장 ■ 前 국제 라이온스 강남중앙회 회장
		안 승 용 (1949)	■ 現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 前 한화 유통 전략기획실장 ■ 前 한화 상품연구소장
시민단체		김재옥 (1946)	■ 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現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남미정 (1957)	■ 現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現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재창 (1936)	■ 現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 現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공동대표 ■ 前 15, 16, 17대 국회의원 ■ 前 환경처 장관

첨부 6 일본의 하계 절전대책 및 자발적 절전추진 사례

□ 주요내용

◈ 원전사고 이후 하계피크기간('11.7.1~9.9) 동안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시행 (하계 전력수급대책 '11.5.13)

○ (목표 설정) 도쿄지역 10.3%, 도호쿠지역 7.4% 수요 억제가 필요
⇨ 수요감축 목표 15%로 설정

○ (정부 대책) 각 대상별로 제한 조치와 자율적 참여를 병행하고,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대책 수립(경제산업성)

대규모 사용자 (500kW이상)	▶ 전기사용제한 조치 실시(전기사업법 근거) · 전년피크시 사용량 대비 15% 절감 의무화 (위반시 시간당 벌금 100만엔 부과)
소규모 사용자 (500kW미만)	▶ 자발적 절전행동계획 수립·실천 · 사업형태별 『절전행동계획 표준양식』을 작성·배포하고, 수요자가 자체계획 수립·이행
일반 가정	▶ 절전선언 운동 등을 통해 자율절전 참여 · 가정용 『절전대책 매뉴』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속에서 절전을 실천
대국민 홍보	▶ 전력상황 및 절전대책을 모든 미디어를 통해 홍보 · TV, 인터넷, 전광판, 모바일기기,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전파

○ (기업 참여) 『전력대책 자주행동계획』 수립·시행

- 경단련 중심으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수립, 630여개사 참여

- 160개의 '전력절감 아이디어'를 작성·전파

* 조업·영업시간의 조절·변경, 공휴일·하절기 휴업 분산, 자가발전기 설치 등

□ 구체적 절전실천 사례

○ (대규모 사용자) 생산감축을 피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가발전 활용, 생산시간 조정, 조명·냉난방 조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

<대규모 사용자 업종별 절전 사례(경산성 조사, '11.10월)>

업 종	절감실적	주요 절전수단
화학	15~25%	자가발전 활용, 공조·조명·OA기기 사용 조정, 정기정비 시기 조정, 열병합발전 및 축전지 활용 등
비철금속	15~34%	자가발전 활용, 공조·조명·OA기기 사용 조정, 일부 조업 정지, 건물 열차단필름 부착, 근무복 교체 등
철강	26% (주요15개사)	주간 조업시간 조정, 자가발전 활용, 연료소비효율 향상, 고효율설비 대체, 에너지절약 감시활동 강화 등
자동차	26~30%	자가발전·열병합발전 활용, 공조·조명설비 사용 조정 등
유통	20~30%	절전가이드 보급, 공조·OA기기 사용 조정, 승강기이용 자제, 실내온도 28℃ 유지, 사업장 내외부조명 조정 등

○ (소규모 사용자) 중소기업은 기업간 윤번조업, 불필요한 전기설비 전원차단 등, 사무중심 사용자는 절전장치 설치, 간판 소등 등 실시

<소규모 사용자 절전 사례(경산성 조사, '11.10월)>

업 종	절감실적	주요 절전수단
중소기업	26%가 20%이상 절전 달성 41%가 15%이상 절전 달성	조합소속 기업간 윤번조업, 불필요한 전기설비 전원차단, 공조·조명 조정, 종업원 교육, 자가발전기 활용 등
편의점	약 20% 절전 달성	스마트 센서 설치, 간판 소등, 실내조명 LED 교체, 태양광 설비 설치, 에너지관리자 임명, 냉난방 조정 등
상점가	-	가로등 및 네온사인 일부소등 또는 LED 교체, 점포조명 및 사무실 조명 억제,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일부 정지, 절전포스터 배포 등 계몽활동 등

○ (일반가정) 日 경산성 『절전대책 매뉴얼』에 따라 조명(참여 81%), 선풍기사용(77%), 냉방온도 28℃ 조정(73%), 대기전력차단(70%) 등 실시

□ 추진 실적

○ 15% 목표가 설정된 도쿄·도호쿠지역은 21% 이상 수요억제 달성, 츄부·호쿠리쿠·큐슈 등 기타 지역에서도 10~13%의 절전 달성

	목 표	평균치 대비 수요억제	최대피크시 수요억제	기온보정 후* (피크시 전년대비)
도호쿠	15%	21.3%	15.8%	18.0%
도쿄	15%	21.9%	18.0%	19.0%
츄부	목표없음	13.4%	7.0%	8.1%
호쿠리쿠	목표없음	12.0%	6.9%	6.5%

* 전년대비 1~2℃ 낮았던 기온을 반영한 수치(경제산업성, '11.9월·11월)